

재미디아스포라들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白先勇의 ‘安乐乡的一日’와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경우

우상렬*

1. 들어가는 말
2. 정체성 갈등문제
 - 1) 신분정체성 갈등
 - 2) 언어정체성 갈등
 - 3) 인종정체성 갈등
 - 4) 문화정체성 갈등
3. 정체성 갈등해결의 갈림길(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1. 들어가는 말

白先勇과 이창래는 각기 미국에서 아시아계 华裔와 한국계 미국인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그들이 창작한 ‘安乐乡的一日’ (王晋民 编.白先勇小说选. 南宁:广西人民出版社,1980)과 “Native Speaker”(Chang-rae Lee, Native Speaker, Riverhead Books, New York, 1995)는 전형적으로 디아스포라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安乐乡的一日’과 “Native Speaker”에 대한 연구는 정체성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히 진행되어 온 줄로 안다. 최근간의 주요 연구성과들을 보면, ‘守望、妥协还是遗忘? -从白先勇的<安乐乡的一日>探析身份认同’ [盛周丽, 张宜民,高飞 西南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6卷第2期,2008.4] 과 “리창래 장 편소설<Native Speaker>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연구”(이계화 .연변대학조선- 한국학학원 아세아-아프리카언어문학 석사학위논문, 2008), “중미 디아스포라문학에 나타나는 소수자의 정체성연구”(지미홍. 연변대학교 문학석 사학위논문 2009) 등은 그 보기가 되겠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성과, 특히 비교문학적 시각과 방법을 마련한 “중미디아스포라문학에 나타나는 소수자의 정체성연구”를 비롯한 연구성과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取长补短 차원에서 ‘安乐乡的一日’과 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석을 마련해보도록 한다.

2. 정체성 갈등문제

정체성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하는 인간실존문제가 닿는다. 타국이민의 경우 ‘집 떠나면 고생’의 소박한 논리는 더 말할 것도

*중국·연변대학교

없고 사회 신분, 지위,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편입되는 사회 기준의 경우와 충돌을 빚기 마련이다. 이로부터 정체성 갈등을 느끼면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해가게 된다.

1) 신분정체성 갈등

디아스포라는 자의든 타의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타향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해도 정신 안정감과 행복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부터 미아콤플렉스가 형성된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자, 소수자, 변두리인으로서 원주민, 다수자, 중심인들이 기득권자로서 형성한 주류사회의 배척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류사회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을 때는 더구나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정체성 갈등을 느끼며 결국 심한 ‘타자’적 소외콤플렉스 속에 정신적 고향의 상실을 느끼게 된다. ‘安樂乡的一日’의 依萍은 중국인 이민 1세로서 미국에 정착하여 보기에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 그녀의 집은 뉴욕부근의 안락촌(Pleasantville)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백인거주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안락촌은 건축가의 손을 거쳐 정밀히 설계된 공기가 신선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안락촌에는 약 6-7천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중산층이다. 依萍이네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중국인가정이다. 그녀는 능력있는 남편덕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실내는 여러 가지 최신 가구들로 호화롭게 장식되었다. 주방에도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져 있다. “Native Speaker”를 보면 Henry는 아시아계 후예로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일상영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고급적인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백인여성과 결혼하여 보기에 미국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依萍도 좋고 Henry도 좋고 그들은 집에서 안정을 못찾는다. 그런만큼 소속감을 상실한 진짜 ‘타자’적 이방인임에 틀림없다. 依萍에게 그 깨끗하고 정결함을 자랑하는 안락촌을 마치 소독처리를 거친 병원의 수술실 같이 느껴진다. 이 수술실은 냉혹한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인정미의 결핍에 다름 아니다. 이로부터 依萍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 그 어떤 애뜻한 정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소외콤플렉스를 느끼게 된다. 그녀는 자기 집의 그 호화로운 가구들도 마치 아이들의 놀이감 같이 느껴지며 진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 그녀는 자기집이 그냥 여러 가지 기계로 가득 찬 실험실 같이 보였다. 수술실이나 실험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면에 냉철하고 냉혹하며 심지어 잔인하기도 한 곳이다. ‘安樂乡的一日’에서 이런 수술실이나 실험실은 미국사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依萍은 바로 이런 냉혹한 미국사회에서 신분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콤플렉스를 느끼며 부평초처럼 떠 있다. 그럴진대 依萍이 몸은 안락향에 있으나 마음은 전혀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빚어내고 있다. 이로부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락향’이 아니다. 제목 ‘安樂乡的一日’라는 것도 이런 역설적 의미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tive Speaker”에서 Henry는 자기를 아내의 ‘장기 손님’이며 ‘영원한 방

문객’이라고 한다.

We play this game in which I am her long-term guest. Permanently visiting. That she likes me okay and bears my presence, but who can know for how long?... She follows me and says that this is her room. I usually sleep on the couch.

그런만큼 그들의 관계는 켈꺼럽하다. 집주인은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맞이하는 것이 예의다. 손님은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하는 만큼 불편하다. 손님의 이런 타자적 존재는 마음의 안식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Native Speaker”에서 Henry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백인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방문객’에 다름 아니었다. 이방인들은 바로 ‘방문객’적인 타자로서 항상 주류사회의 응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문객’은 항상 조심스럽다. Henry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큰 소리로 읽는 것을 꺼려했다. 후에는 아들에게 책읽어주기도 거부한다. Henry의 아버지는 아들의 농구시합을 구경하면서 큰소리로 응원해주지도 못한다. 그것은 자기의 이방적 ‘방문객’특색이 드러나 더욱더 응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주류사회에서도 실제로 소수이방인들에게 ‘타자’적 주변화 삶을 강요하고 있다. Henry의 백인보스 Hoagland는 Henry더러 두드러지지 말고 납작하게 엎드려만 있으라고 한다. 그냥 뒤에 머물면서 보이지 않는 隱形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Hoagland를 주류사회의 한 대변인으로 볼 때 Henry에 대한 이런 요구는 실지로 주류사회가 소수이방인에게 당당한 삶보다는 주변부적 주눅든 삶의 방식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Remember how I taught you. Just stay in the background. Be unapparent and flat. Speak enough so they can hear your voice and come to trust it, but no more, and no one will think twice about who you are. They key is to make them think just once. No more, no less.

훌륭한 교육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Henry가 사인탐정의 스파이노트를 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파이노트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은밀히 행동한다. 이것은 Henry가 ‘타자’적 소수이방인으로서 주류사회의 인물들처럼 떳떳이 살아가기 보다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enry에게 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내로부터 온다. Henry는 아내가 일기목록을 우연히 보게 된다. 거기에 Henry는 숨기는 것이 많은 엄중한 사람이고, 불법외국인이며, 정서적 이방인으로 낙인찍혀 있다. 뿐만 아니라 신미국인이지만 위험한 황인종이고, 미국문화를 추종하는 동시에 또한 거부하고 반역하는 존재이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양쪽사회의 경계에 서서 두 사회를 결눈질하는 첩자이다. 이 긴 목록은 주류사회의 일원인 Lelia의 Henry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Henry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소수이방인으로서 ‘타자’적 사회지위도 설명해주고 있다. ‘가족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는 상동성을 가지’며 ‘가족의 삶과 국가의 삶, 이 둘 사이에 불균형이란 없다’는 유교적 논리가 유효함을 감안할 때 바로 그런 것이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이런 콤플렉스에 절은 소외와 왕따는 Henry에게 정신분열증을 안겨준다. 그는 필리핀계 정신과의사 Emil Luzan을 찾아가 이름도 없고 보지도 못한 자신의 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형은 가라테, 쿵푸, 태권도, 유도를 할 줄 알았는데 원하기만 하면 커다란 흑인아이들을 때려 눕힐 수도 있었다. 그리고 형은 백인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대단하였는데 모두가 보는데서 그들과 입을 맞추는 대담성도 가졌다. 이런 형은 또한 영어도 잘 하고 웅변도 잘 하는 어느 모로 보나 주류사회 시각에 부합되는 완벽한 존재이다. 이런 형이 사고를 당할가봐 Henry는 항상 불안해 한다. 이 형은 바로 Henry가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영한 그 자신의 ‘슈퍼에고’로 볼 수 있다. Henry가 보이는 이런 정신분열증세는 실존적 자아와 ‘미국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슈퍼에고’의 당위적 자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Native Speaker”는 장편소설인 만큼 단편소설인 ‘安樂乡的一日’보다 훨씬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신분정체성 갈등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Henry의 아버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비록 한국에서 일류대학을 졸업했지만 그에게 차례진 직업은 과일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직업 면의 낙차로 인하여 주변화된 신분정체성 갈등을 겪는다. 이것은 Henry와 어머니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Why are you asking him about the stores?” she interrogated me in Korean, her tongue plaintive, edgy, as though she were in some pain. “I was just asking,” I said. “Don’t ask him. He’s very tired. He doesn’t like talking about it.” “Why not?” I said, this time louder. “Ssh!” she said, grabbing my wrists. “Don’t shame him! Your father is very proud. You don’t know this, but he graduated from the best college in Korea, the very top, and he doesn’t need to talk about selling fruits and vegetables. It’s below him. He only does it for you, Byong-ho, he does everything for you. Now go and keep him company.”

이처럼 어머니는 Henry가 아버지에게 가게에 대해 묻는 것을 제지시킨다. 아버지는 자기의 직업에 대해 입에 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꺼림직한 것이다. 그것은 일종 직업콤플렉스에 다름 아니다. 이리하여 Henry나 기타 가족성원들이 가게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단지 Henry아버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0년의 통계에 의하면 25세 이상의 한국계 이민자들 중 34%가 대학졸업장 소유자이고 80%가 고졸졸업장 소유자로서 같은 시기 미국인들의 대학졸업장 소유자 20%와 고졸졸업장 소유자 7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지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초라한 청과상에 종사해야 함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별 볼일 없는 주변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2)언어정체성 갈등

언어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주요 내용의 하나이다. 이른바 모국어라는 것은 바로 한 인간의 언어정체성을 이룬다. 이주민들은 이주국에서 바로 모국어와 원주민언어 사이에서 언어정체성 갈등을 느끼게 된다. ‘安樂乡的一日’와 “Native Speaker”의 이주민들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주류언어나 관방언어는 영어이다. 이로부터 영어는

일종 언어패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비영어권 언어를 구사하거나 영어를 못하거나 잘 못하는 비영어민은 심한 언어콤플렉스에 쌓이게 된다. ‘安乐乡的一日’의 依萍과 “Native Speaker”에서 Henry 아버지의 경우 영어문제로 골치를 아파한다. 依萍은 동네아줌마들의 독서회에 참가한다. 그런데 영어실력이 시원치 않아 책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읽기를 끝내고 책에 대해 이것저것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할 때면 그녀는 아직 독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들의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해석학자 헤더게이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주류언어로부터 느끼는 콤플렉스는 그 집단으로부터의 소외의식으로 연장되어 결국 존재의 집을 잃게 된다. 依萍은 밖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딸은 집에서 영어로 대화하기가 일수다. 依萍은 심한 언어적 소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버릇없는 딸애를 교육할라 치면 딸애는 영어로 그것도 표준적인 뉴욕악센트로 ‘엄마는 나빠!’하면서 반항하군 한다. 이때면 依萍은 자기의 영어콤플렉스를 자극받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Henry 아버지는 어눌한 영어 때문에 주눅이 든 반면 가게에 온 손님들한테 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My father, thinking that it might me good for business, urged me to show them how well I spoke English, to make a display of it, to casually recite “some Shakespeare words.”

사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신이 영어 때문에 쌓인 콤플렉스를 Henry를 통하여 해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영어콤플렉스가 있지만 어머니와 다툼 때면 오히려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주류사회 언어패권의 희생자이면서 가해자가 된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영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애원하군 했다. 이 때의 아버지의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담론권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 주류사회의 언어횡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Henry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등한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없고 그것이 가정에서 하위주체로 전락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는 일단 완벽한 영어구사가 기본이다. “Native Speaker”에서 Henry는 일상생활용어 이상의 고급영어를 구사한다. 백인들은 Henry의 영어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nry는 항상 자신의 발음에 신경을 쓴다. 혹시 발음을 잘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근심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내 Lelia의 말대로 그의 이런 의식적인 언어구사 자체가 그를 비영어민으로 만드는 것이 되었다. 그는 또한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아내의 의견도 마다한다. 그는 자신이 비영어민으로 겪어야만 했던 언어콤플렉스가 아들한테서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들은 이중언어사용자가 되지 말고 완벽한 원어민이 될 것을 갈망한다. Henry는 파농이 말할 것처럼 ‘각 언어는 하나의 세계와 문화를 반영한다. 백인이 되고자 하는 흑인들은 언어라는 문화적 도구를 보다 완벽하게 지배함으로써 백인에 가까워지려 한다. 어떻게 하면 언어를 보다 세련되게 가공할 것인가에 집착하며 이런 완벽한 언어사용으로 자신이 백인의 문화를 완

전정복했다고 느낀다’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하더라도 미국 주류사회는 그들을 원어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영어는 미국 주류사회의 언어로서 백인이 아닌 아시아계 미국인의 완벽한 영어사용은 주류문화에 대한 이방인의 ‘모방(mimicry)’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단지 귀여운 존재로만 보아줄 뿐이다. 이에 반해 ‘安樂乡的一日’의 주인공 依萍과 “Native Speaker”의 Henry 및 그의 아버지는 미국사회에서 자기의 모국어가 통하지 않고 주류사회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언어환경으로 말미암아 심한 언어콤플렉스에 쌓였던 것이다.

3)인종정체성 갈등

인간은 천생 인종적으로 나뉘어진다. 물론 인종은 우열이 없고 평등하다. 그런데 근대화의 진척과 더불어 유럽중심주의가 형성되고 백인우월주의가 나타났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그렇다하여 모든 일종이 평등한 것은 아니다. 백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백인우월주의가 팽배하다. 이로부터 비백인계의 유색인종은 백인의 백안시를 받으며 인종 정체성 갈등을 느끼게 된다. ‘安樂乡的一日’와 “Native Speaker”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安樂乡的一日’의 이민 1세 依萍은 동네아줌마들과의 교제에서, 宝莉는 학교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겪는다. 依萍은 동네백인아줌마들의 모임에 자주 참가하여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남편의 권유에 못이겨 마지못해 그들의 모임에 참석한다. 동네백인아줌마들은 귀한 손님 대하듯 依萍에게 각별히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와 依萍에게 문안인사를 전했으며 분에 넘치도록 열정적이었다. 依萍과 한자리에 있을 때면 언제나 흥미있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중국사람들의 음식생활이며, 복장, 가옥 등 인정세태에 대해 묻곤 하였으며 또 다투어 미국의 풍속에 대해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주인으로서의 처세를 하느라 애썼다. 이때 그녀는 백인주류사회의 배품에 감지덕지 해야 할지 헛갈린다. 그것은 이럴수록 자기가 분명 백색주류사회의 타자로서의 황색중국사람이라는 것을 한층 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그녀 역시 그녀를 ‘응시’하는 백인주류사회의 시선에 맞춰 더욱더 의식적으로 자신의 황색중국성을 드러내보이는 존재임을 발견한다.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중국식 치포(旗袍)를 입곤 하였다. 또한 입가에는 동양여인다운 가벼운 웃음을 띠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네아줌마들의 짓궂은 물음에 대답하곤 하였다. 그런 물음은 이젠 신물이 날 정도로 여러번 들어왔던 물음들이건만. 依萍은 이렇게 번마다 모임에서 힘들게 백인주류사회의 황색이방인에 대해 당연시한 ‘중국인다운 중국인’노릇을 한다. 이런 노릇은 백인주류사회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족했다. 그러나 依萍은 너무 힘들어 두통약을 먹어야 했다. 이런 신체상의 고통은 알게 모르게 백인주류사회의 인종차별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다름 아니다.

依萍의 딸 宝莉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민 2세이다. 그는 표준적인 뉴욕악센트의 영어를 구사했으며 행위문화와 언어문화에서도 완전히 미국식으로 변해버렸으며 심지어 자신을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착각

한다. 그러나 백인주류사회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宝莉를 타자로 구분한다. 宝莉는 학교에서 미국애들한테 황색중국사람이라고 불린다. 이는 줄곧 자기를 미국사람이라고 인정해왔던 宝莉에게 충격적인 것이다. 이로부터 심한 인종정체성 갈등을 느끼면서 애들과 트러블이 생긴다. 이처럼 宝莉는 자기 스스로 미국사람이라고 인정하나 인종차별 앞에서 인종정체성 갈등을 느끼며 심한 인종콤플렉스에 쌓일 수밖에 없다. ‘安乐乡的一日’에서 宝莉의 인종정체성 갈등은 바로 依萍의 인종정체성 갈등의 심화이며 연장으로 볼 수 있다. 依萍이 일종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및 인종콤플렉스를 느꼈다면 宝莉는 눈에 띄이게 그것을 느낀 셈이다.

“Native Speaker”에서 Henry가 백인여자와 결혼하고 아들의 외모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써지 않는 것은 인종정체성 갈등을 말해준다. Henry는 Lelia가 백인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혼상대로 정하고 극력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그는 결혼을 통하여 인종콤플렉스를 해소하고 백인주류사회에 동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밖에 아들이 태어날 때도 좀더 백인에 가깝기를 희망하면서 아들이 밖에서 ‘혼혈아’, ‘황인종’으로 불릴가봐 두려워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Henry는 자신이 백인여성과의 결혼을 통하여 미국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백인아내의 눈에서 서글퍼게도 자기가 아직도 황색이방인임을 느낀다.

Henry의 아버지는 미국 백인주류사회의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백인에게는 우호적이나 흑인들에 대해서는 그닥 우호적이지 못하다. 아버지는 일정한 부를 일군 후 백인들이 사는 Ardsley로 이사를 간다. 아버지는 미국 백인주류사회에 가까워지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온 가족이 백인주류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지나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 그리하여 온 가족은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과 거북함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Henry의 아버지는 Henry가 사춘기 때 아들이 같은 민족의 처녀와 결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Henry가 아버지한테 백인여성인 Lelia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준다. 이것은 Henry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오히려 Henry더러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Henry가 결혼한 후 아버지는 미국 백인머느리가 있음으로 자호감을 느끼며 Lelia를 자기 딸이라고 한다.

He never said it, but I knew he liked the fact that Lelia was white. When I first told him that we were engaged I thought he would vehemently protest, again go over the scores of reasons why I should marry one of our own (as he had rambled on in my adolescence), but he only nodded and said he respected her and wished me luck. I think he had come to view our union logically, practically, and perhaps he thought he saw through my intention, the assumption being that Lelia and her family would help me make my way in the land.

Henry의 결혼을 둘러싸고 아버지의 전후 모순적인 표현은 미국 백인주류사회와 부성애의 충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인종정체성 갈등양상으로 볼 수 있다.

4) 문화정체성 갈등

문화는 장기간의 생활과정에서 나름대로 형성된 일종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다. 사실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이 문화정체성 갈등이다. ‘安乐乡的一日’와 “Native Speaker”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安乐乡的一日’는 세대 간의 충돌을 통해 문화정체성 갈등을 잘 보여준다. 依萍은 미국으로 이주해오기 전에 전통적인 중국문화교육을 받아왔다. 依萍은 딸 宝莉도 자신처럼 예의범절이 바른 중국식 여자애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이민 3세인 딸은 백인동네에서 백인학교를 다니며 백인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미 백인주류문화에 젖어 있었다. 청바지를 입고 입에 사탕을 물고 다니며 어머니의 이름도 꺼리낌없이 부른다. 중국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딸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依萍은 딸애가 여섯살이 되기 전까지 중문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소학교 2학년이 되자 딸애는 더는 중문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依萍은 딸에게 자기들은 확실히 미국인들과 피부색과 머리색깔이 다른 중국사람임을 명백히 알려주면서 ‘나는 중국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딸은 강렬히 거부한다. 그는 자기가 중국사람이라고 승인하지 않을 뿐더러 종래로 그렇게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宝莉는 소학교 2학년이 되자 고국문화에 대하여 완전히 거부한다. 依萍이 소중히 여기는 중국문화를 딸은 쓸모없는것으로 생각한다. 이 밖에 宝莉는 중국식의 소꼬리탕을 먹기 싫어하고 미국문화를 상징하는 콜라를 좋아한다. 보다시피 依萍과 딸 宝莉 사이에는 건잡을 수 없는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형성된다. 이런 세대 간 갈등은 결국 문화정체성 갈등에 다름 아니다.

‘安乐乡的一日’에서 依萍과 남편 사이의 갈등도 일종 문화정체성 갈등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来美国与伟成组织家庭后，发觉她在中国学的那套相夫教子的金科玉律，在她白鸽坡这个家庭里不太合用，伟成太能干了，依萍帮不上忙。…伟成在美国日子久了。一切习俗都采取了美国方式，…家务上的事情，依萍往往还得听取伟成的裁夺。

依萍은 중국에서 배운 ‘相夫教子’의 ‘金科玉律’이 집에서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미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오랜 남편이 모든 습속을 미국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문화와 미국문화의 갈등으로 비화된다. 그런데 문제는 依萍이 세세한 가무에 있어서조차도 남편의 의사에 따라 하게 된다는데 있다. 미국문화의 우세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依萍은 심한 문화정체성 갈등 내지 문화콤플렉스를 느끼게 된다.

3. 정체성 갈등해결의 갈림길(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그럼 ‘安乐乡的一日’과 “Native Speaker”는 정체성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安乐乡的一日’의 경우 주인공들은 정체성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작품의 결말을 보면 依萍은 현훈증을 느끼며 쓰러진다. 그녀는 움직일 맥조차 없어 어둠속에서 홀로 침대에 누워있다. 차디찬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다. 서글프다. 보다시피 정체성갈등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Native Speaker”에서 Henry는 미국국적으로서의 국민정체성과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의 융합을 거쳐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아간 듯하다. 작품 결말에서 Henry는 스펀지직업을 그만두나 ‘Still I love it here’하며 언어치료사인 아내 Lelia를 도와주는 일에 나서며 ‘I like my job’한다. 결국 현재 여기 미국에서의 삶 즉 국민정체성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이방인의 언어정체성 갈등해결에 힘쓸 것이며 백인주류사회에로의 프로포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은숙의 ‘이창래Chang-rae Lee:아웃사이드의 정체성, 소외의식과 동화에의 열망’(이소희·김진경, 20세기 미국소설의 이해II, 동인도서출판, 2006)도 이런 논의를 얼마간 전개한 줄로 안다. 사실 이창래는 한국계 미국인의 문화정체성과 사회동화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둘 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이를테면 ‘일종의 사회적 동화가 없다면 당신은 언제나 소외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외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들과 다르게 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외자처럼 대하지요. 반면에 미국에서 당신이 한 가닥의 문화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즉 이민자의 본국에서 가져온 정체성과 미국인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인이 된다는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국가의 본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입니다. 어떤 문화유산과 자아인식, 동일시 없이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실제로 일종의 가족 의식을 갖고, 가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다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요’는 그 보기가 된다.

이로부터 ‘安乐乡的一日’의 정체성갈등이 “Native Speaker”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차이로부터 白先勇을 미국 아시아계 华裔로 볼 수 있고 이창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볼 수 있겠다. 白先勇은 이런 정체성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한 것 같다. 그는 미국에 있는 华裔들의 정체성문제를 다룬 일련의 “纽约客”계열에 속하는 단편소설들을 창작한다. ‘安乐乡的一日’도 이 계열 가운데 한 편이다. 白先勇은 중국 국민당군대의 고위급 장교인 白崇禧의 아들로써 1937년 생으로 1948년에 홍콩에서 소학교를 다녔고 1952년 대만에 이주하여 거기서 중학교를 마쳤다. 그리고 1957년에 대만대학외국어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그는 25살이 나던 해인 1962년에 미국으로 건너간다. 보다시피 그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이미 중국적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본신은 중국전통문화에 대해 무한한 애착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미국에서 30여년간 생활한 그였지만 시종 중문으로 된 문학창작을 고집하였으며 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분교에서 중국언어문학과 교수직을 맡아하였다. 昆曲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도 이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 하에서 비록 미국에로의 이주는 자체로 선택한 결정이지만 동서방 문화와 가치의 충돌은 불가피면적이며 그가 경험한 정체성갈등은 이창래의 경우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1963년에 미국 爱荷华대학교에서 소설창작과정을 전공하여 1965년에 석사학위를 따고 이창래처럼 교수로 발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在美国, 心境是苍凉的’, ‘我到美国

后, 第一次深深感到国破家亡的访惶.’하다고 술회한 것은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Native Speaker”의 안이한 문제해결은 어쩌면 이창래 본인의 자신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창래는 1965년 생으로 3살에 미국에 이주한 1.5세대로서 그가 미국으로 갈 때는 白先勇와는 달리 백지상태로서 한국적 정체성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전반 교육을 받은 만큼 언어장애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는 다섯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았는데 열살정도 되면서부터 영어를 못 하는 어머니를 위해 영어통역을 하곤 하였다. 그는 한 때 미국에서 살면서도 영어를 못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어머니로 하여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가 영어로 창작한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대학교 교수로 발탁되고 문예창작과 교수로서 창작 면의 성공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그럴진대 그의 문제해결이 미국 주류사회 쪽으로 기울어질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미국 주류사회에 대해 느끼고 있는 콤플렉스를 푸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Native Speaker”에서 Henry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일상용어 이상의 고급적이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백인여성과 결혼하여 보기에는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이룩한것으로 보인다. 서사학에서 놓고 볼 때 Henry는 이창래의 ‘내포작가’(작가의 대변적 인물)적 특색이 진하다. 이창래는 실제로 유선모와의 인터뷰에서 “Native Speaker”를 쓰게 된 ‘주된 동기는 나의 성격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安乐乡的一日’과 “Native Speaker”가 창작된 시기를 보더라도 白先勇이 미국에 이주한 시기뿐만 아니라 그가 ‘安乐乡的一日’을 창작할 때도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이 반포되지 않은 때로서 미국사회에는 비백인이주민에 대한 배척정서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Native Speaker”가 창작된 1995년이라는 시점은 전 세계적인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미국사회도 훨씬 다문화공존, 다원가치공존의 무드가 무르녹기 시작한 시대분위기였다.

白先勇과 이창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白先勇의 경우 워낙 탄탄한 가정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창래의 경우도 보면 아버지는 정신과의사였고 어머니는 농구선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대학교교수로 발탁된 만큼 미국 주류사회로 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정체성 갈등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창작한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 갈등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이 미국 아시아계 華裔와 한인 문예창작과 교수, 작가로서의 사명감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아시아계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白先勇의 ‘安乐乡的一日’과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주요 인물들의 정체성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미 華裔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상 고찰을 통하여 재미 華裔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정체성갈등을 딛고 새로운 조화와 융합의 기틀도 보게 되어 상당히 희망적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王晋民 (1980), 白先勇小说选, 广西人民出版社
- 袁良骏 (1991), 白先勇小说艺术论, 吉林大学出版社
- 刘俊 (2000), 悲悯情怀--白先勇评传, 花城出版社
- 丛坤赤 (2007.6), 论白先勇的文化乡愁.山东教育学院学报
- 隐地编 (2008), 《白先勇书话》, 尔雅出版,
- 황철 (1996), <네이티브 스피커>에서의 옛보기의 의미, 현대영미소설3,
- 구은숙 (2000), 문화/인간 옛보기-<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스파이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7,
- 김민주 (2003), 아시아계 미국인의 미국인 되기의 의미-<노-노 보이>와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진선 (2004), 언어와 문화적 무의식: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하선우 (2005),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혼란 탐구-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과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고양성·노종진 (2005.6),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츄어 인생>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존재의식과 정체성, 영어영문학 제47권 2호
- 이해경 (2006), 이창래의Native Speaker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인간관계회복 연구.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도원 (2007), 다문화 시대의 소수 민족 정체성 연구: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경북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A Study on Diaspora Literature of Asian American writers:
-Focused on Bai Xianyong's 『One day in Anle Village』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

Abstract

Bai Xianyong's *One Day in Anle Village*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are the typical works of diaspora literature, and both of them are Asian American writers who live in America. This paper analyzes the identification of the minorities in the two novels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achievements of the predecessors, this paper makes good for deficiency and analyses the cause of identification. Firstly, identification is explained, mainly through identification about identity, language, race and culture. Secondly,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s who are in the intersection is also discussed about.

Analys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s in Bai Xianyong and Chang-Rae Lee's works,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Asian Americans who are living in America, especially the situation of Chinese and Korean Americans, and discover the beauty of overcoming difficulties and living strongly.

Keywords: Bai Xianyong; Chang-Rae Lee; diaspora; Identity; dissension